KIA 장성호 역전 투런포

삼성에 3-1 승리…선발 강철민 3승

KIA 타이거즈의 '스나이퍼' 장성호가 올 시즌 첫 4번타자로 출전, 역전 투런 홈런포를 뽑아내며 거포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KIA는 14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06 삼성 PAVV 프로야구 삼성과의 경기에서 장성호의 투런포와 선발 강철민의 호투에 힘입어 3-1로 역전승을 거뒀다.

KIA 선발 강철민은 7.1이닝동안 5안타, 1실점으로 시즌 3승째를 올렸다. KIA는 14승 13패 1무로 단독 5위에 랭크됐다.

올 시즌 첫 4번 타자로 출격한 장성호는 이날 4타수 2안타(1홈런), 2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팀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장성호는 0-1로 뒤진 4회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와 수비 실책을 묶어 3루까지 출루한 뒤 손지환의 희생 플라이때 홈을 밟아 승부를 1-1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어 양팀의 투수전으로 1-1로 팽팽히 맞선 8회 장성호는 1사 주자 2루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투런 역전포로 승부를 매듭지었다.

한편 KIA는 지난 13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1-2로 패했다.

선발 한기주는 6이닝동안 6안타 2실점을 내줘 패전 투수가 됐고 시즌 성적은 1승 4패 방어율 3.77을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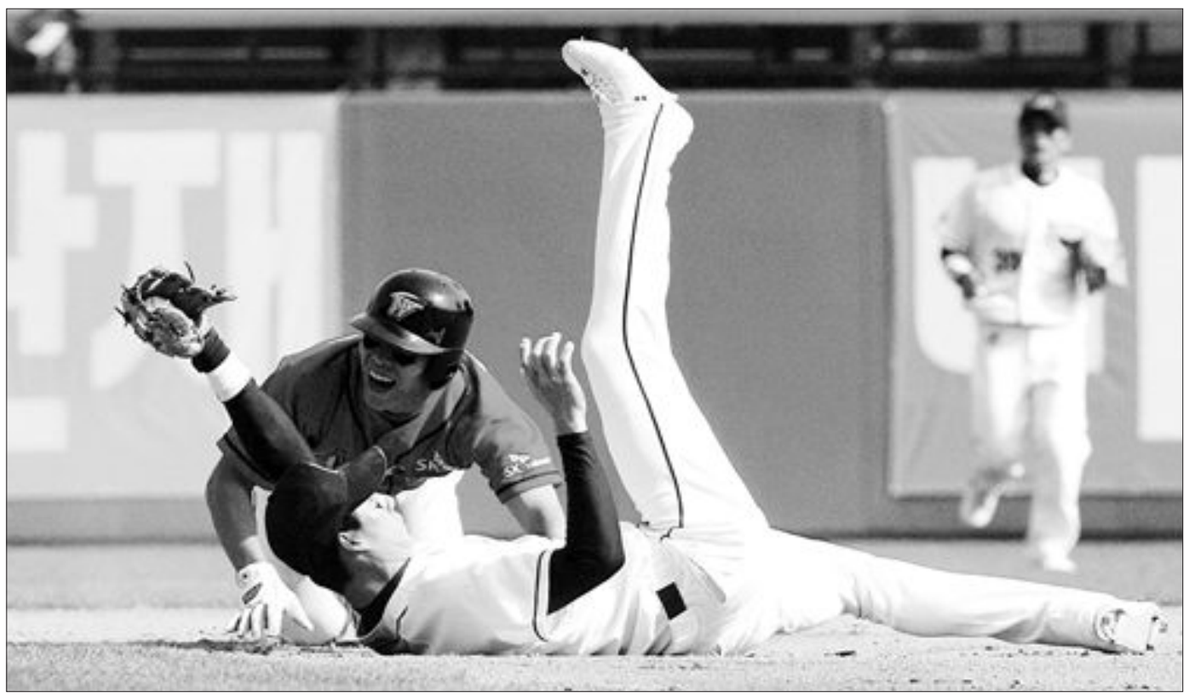
◇14일 대구경기

KIA

0	0	0	1	3
0	0	1	0	1

삼성

▲승리투수=강철민(3승1패)
▲세이브투수=윤석민(1승1패1세이브)
▲패전투수=배영수(1승3패)
▲홈런=박진만 1호(3회·삼성) 장성호 7호(8회2점·KIA)



내가 먼저인데… SK의 정근우가 14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7회초 도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싱크로나이즈 다이빙 챔피언 14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국다이빙그랑프리대회 여자 싱크로나이즈에서 금메달을 따낸 중국의 지아퉁(왼쪽)과 첸 로우린이 멋진 폼으로 다이빙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재응·박찬호·김병현 15~17일 릴레이 등판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선발투수 3인방이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릴레이로 출격, 승리 사냥에 나선다.

'컨트롤 아티스트' 서재응(29·LA 다저스)은 15일 새벽 5시 5분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벌어지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 시즌 2승에 도전한다.

한국 투수 가운데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16일 오전 10시40분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3승을 노린다.

2승1패, 평균자책점 3.57로 선전 중인 박찬호가 2승3패, 평균자책점 6.66으로 썩 좋지 않았던 체이스필드에서 3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마지막 주자인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29·콜로라도 로키스)은 17일 오전 9시35분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LA다저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시즌 2승 및 홈 첫 승에 도전한다. 김병현의 시즌 성적은 1승1패, 평균자책점은 5.89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 대상

'맞춤식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오주)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각계 각층에 맞는 맞춤식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에 마련된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체련교실', 성인 여성을 위한 '여성생활체육강좌', 60세 이상을 위한 '장수체육대학'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광주시의 시비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운영되며 오는 12월까지 5개구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은 각 학교에서 축구, 배드민턴, 음악줄넘기등을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연계 실시한다.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여름을 대비한 건강한 몸매가꾸기강좌가 주를 이루고, 60세 이상 장수체육대학은 게이트볼, 단학기공,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한다. (문의)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062-381-3322.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선우 8이닝 무실점 역투 빅리그 재승격 청신호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중인 김선우(29·콜로라도 로키스)가 올 시즌 들어 가장 좋은 투구를 펼치며 빅리그 재승격의 청신호를 켰다.

콜로라도 산하 트리플A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속인 김선우는 14일(한국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로젠블랫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오마하 로열스(캔자스시티 산하)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 8이닝 동안 안타를 단 한 개만 맞고 탈삼진 5개를 솎아내며 무실점으로 역투, 팀의 9-0 승리를 이끌었다.

투구수는 110개, 스트라이크는 64개였다. 특히 땅볼이 14개(뜬공은 5개)로 공을 낮게 뿌리는 데 집중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6회 1사 후 루벤 고태이에게 좌전 안타를 내줄 때까지 노히트로 던졌다.

그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오기는 올해 메이저리그 3번의 등판까지 합쳐 이날이 처음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1점차 석패

제주·대구 맞아 0-1, 3-4로 져

프로축구 광주 상무와 전남드래곤즈가 삼성 하우젠컵 첫날 대회에서 모두 1점차로 석패했다.

전남은 14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2006 삼성하우젠컵 대구 FC와의 1라운드에서 7골이 터지는 골 풍년속에 3-4로 패했다. 이날 전남과 대구는 3차례의 역전 상황이 연출되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첫 득점은 전반 13분 대구 송정우의 발끝에서 터졌다. 이에 질세라 전남은 3분뒤인 전반 16분 구현서의 만회골에 이어 전반 38분 백진철의 역전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그러나 후반 4분 대구의 가브리엘이 또 다시 만회골을 뽑아내며 승부를 제자리로 돌려놨다. 이후 전남은 후반 9분 주광윤의 추가골이 터지며 3-2로 앞서나갔으나 대구 지네이의 후반 39분과 42분 연속골이 폭발, 다잡은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광주는 제주구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후반 32분 제주의 이상호에게 내준 결승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0-1로 패했다.

한편 이날 개막한 프로축구 2006 삼성하우젠컵은 오는 7월29일까지 팀당 13경기씩을 치른다. 독일월드컵 직전인 내달 6일까지 열렸다가 월드컵 기간에 휴식을 취한 뒤 7월5일부터 속개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당뇨병 투혼' 박부원 데뷔 15년만에 우승

KPGA 메리츠 솔모로오픈 7언더파 277타로 정상 올라

당뇨병과 10년째 싸우고 있는 박부원(41·링스골프)이 프로 데뷔 15년만에 첫 우승컵을 안았다.

박부원은 14일 경기도 여주 솔모로골프장(파71·6천757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언투어 메리츠 솔모로오픈 최종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77타로 정상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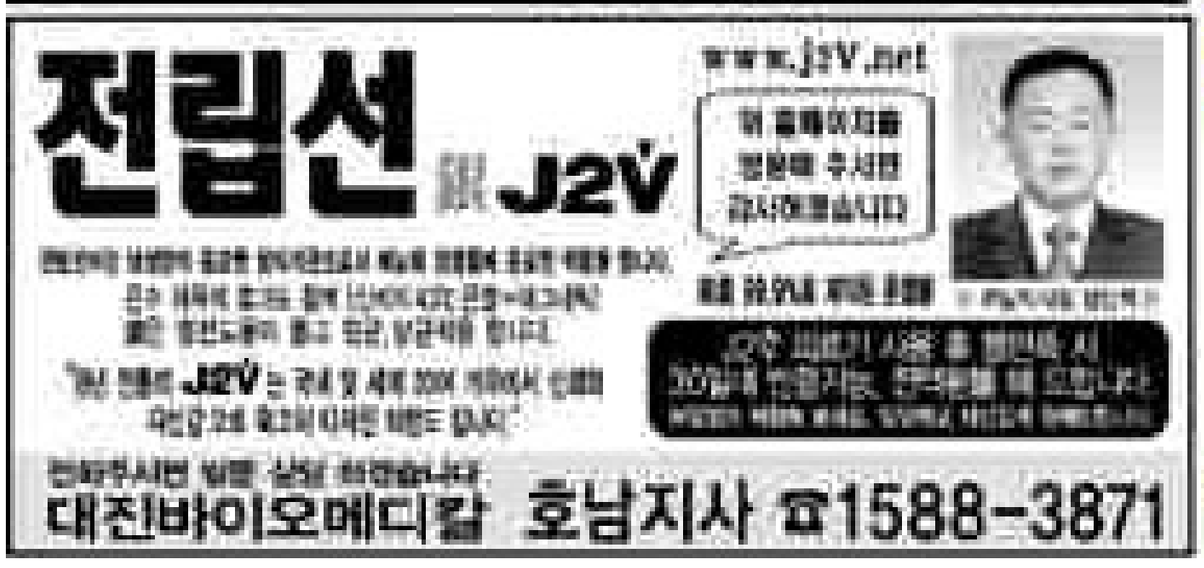
1992년 프로에 뛰어든 박부원은 1년에 한두차례 '톱 10'에 올랐을 뿐 우승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2년전부터 인슐린 주입기를 허리춤에 차고 대회를 치르고 있는 박부원은 이번 대회에서도 1~3라운드 내내 선두권을 달렸으나 우승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부원은 선두그룹 선수들이 일제히 오버파 스코어로 무너진 사이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여 역전승을 일궈냈다.

단독 선두 김대섭(25·SK텔레콤)에 2타 뒤진 공동 3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박부원은 6번(파5), 7번홀(파4) 연속 버디와 9번홀(파5) 버디로 단숨에 선두로 도약했다.

김대섭은 5번홀(파3) 보기에 이어 6번홀(파5)에서 더블보기를 저지르며 무너졌고 박부원에 1타 앞선 2위로 4라운드에 나선 박재범(24)도 10번홀까지 3타를 까먹어 박부원은 일찌감치 4타차 선두로 나설 수 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15일(월)

▲메이저리그〈시카고W-미네소타〉(08 : 55·Xports)
▲월드컵 출전국 평가전〈네덜란드-에콰도르〉(12 : 50·MBC)